



### 설원 속 정조준

15일 강원도 대관령에서 열린 제18회 문화관광부장관기 바이애슬론 남자부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사격을 하고 있다. 실업 2년차 기대주인 최준희(경기도체육회)는 남자 일반부 20km 개인경기에서 55분21초10의 기록으로 팀 동료 윤정빈(56분50초50)을 제치고 정상에 섰다. 또 박효범(전주대)은 남자 대학부 개인전에서 59분42초90으로 우승했다. /연합뉴스

## “봉급날 다가오는데”

### 현대유니콘스 선수급여 놓고 KBO, 재원 마련 대책 고심

도산 위기에 빠진 프로야구 현대 유니콘스의 올시즌 첫 급여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대 선수단이 미국 플로리다주 브레이튼턴에서 전지훈련 중인 가운데 구단은 오는 25일 올해 첫 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에 따르면 구단이 급여일에 참가활동보수(월급) 지급 이행을 태만히 할 경우 15일이 지난 날부터 선수는 자유계약선수로 풀릴 수 있다. 사실상 구단이 해체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현대 유니콘스 매각을 추진 중인 KBO의 이상일 운영본부장은 “25일 선수단에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상일 본부장은 “2월 급여에 필요한 돈

은 9억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일단은 현대가 범 그룹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KBO 기금이 지원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KBO가 기금을 현대에 지원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첫째는 유니콘스 구단에 기금을 대출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구단의 급여 지급 불능 상태를 지켜본 뒤 응급조치 차원에서 선수단을 인수해 KBO가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KBO가 어떤 방식을 취할 지는 8개 구단 사장단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결정되겠지만 KBO 내부적으로는 기금 대출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최상의 방법은 급여일 전에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하는 방안이다. 신상우 KBO 총재는 이달 초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대) 인수를 희망하는 곳이 서너 군데 있고, 20일까지는 해결돼야 한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상일 운영본부장은 “일부 기업과 접촉을 계속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미켈슨 골프대회 중 비행기 타고 ‘출·퇴근’

매일 비행기를 타고 집과 대회장을 오가면서 골프대회에 출전한다? 1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케틀비치내셔널프로로암에서 우승, PGA 통산 30승을 달성한 세계골프랭킹 4위 필 미켈슨(미국)에게 잘 알려진 별명은 왼손잡이라는 뜻의 ‘레프티(Lefty)’다. 왼손잡이라는 별명 말고도 가족을 남달리 위하는 미켈슨에게 붙어있는 또 하나의 별명은 ‘패밀리맨(family man)’이다. 1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켈슨은 다소 엉뚱하면서도 끔찍한 가족 사랑이

옛보이는 결정을 내렸다. 16일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리비에라골프장에서 열리는 PGA투어 닷산오픈에 매일 비행기로 집에서 출퇴근하기로 한 것. 샌디에이고 외곽 란초 산타페에 살고 있는 미켈슨이 집에서 산타 모니카 공항을 통해 골프장까지 가는 거리는 192km로 1시간 가량 소요 된다고. 미켈슨은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딱 좋다”면서 “집에 일찍 와서 내가 늘 하던 훈련 장비로 연습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KPGA 세미프로 투어 출범 상·하반기 각각 6개 대회 출전

대회 출전 기회를 좀처럼 잡지 못하는 세미프로골퍼들을 위한 투어가 출범한다. 한국프로골프협회는 15일 종로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SBS골프채널, 한국캘러웨이골프와 ‘SBS골프 캘러웨이 투어’를 개최하는데 합의하고 공식 조인식을 가졌다. KPGA 소속 세미프로들이 출전하는 이

대회는 상, 하반기 두차례의 예선전을 통해 각각 6개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시드를 배정하며 올해 상반기 예선은 3월12일 롯데스카이힐제주골프장에서 열린다. 4월2일 함평다이내스티골프장에서 열리는 1차 대회를 시작으로 모두 12개 대회가 개최되는 SBS골프 캘러웨이 투어는 총상금 4억8천만원(매 대회 상금 4천만원, 우승상금 1천만원)이 걸려 있다. 또한 대회마다 점수를 매겨 상위 2명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캘러웨이투스에 출전하는 모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심재학 ‘우울한 설’



### 손바닥 뺏조각 제거 수술...3~4개월 치료 전반기 출전 불가능...선수생명 최대 위기

KIA 윈손 타자 심재학(35)이 올 시즌 전반기를 접게 됐다. 심재학은 15일 오후 서울 김진섭 정형외과에서 손바닥의 뺏조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심재학은 지난 11일 미야자키 전지훈

전에서 자체 홈백전을 치르다 오른쪽 손바닥뼈가 부러지는 부상으로 13일 조기 귀국했고, 정밀검진 결과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병원측은 수술 후 최소 3~4개월은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놓았

다. 올 시즌 재기를 노렸던 심재학으로서 는 뼈아픈 부상이다. 총알고-고려대를 거치며 아마추어 최고의 좌타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심재학은 1995년 1차 지명으로 LG에 입단한 뒤 중 심타자로 활약했다. 심재학은 90년대 LG의 황금 좌타라인 을 이끌었고, 현대로 트레이드된 2000년 에는 21홈런을 치며 한국시리즈 우승을 견인하기도 했다. 2001년엔 두산으로 옮겨 타율 0.344-24홈런-88타점을 기록하 는 맹타를 휘둘렀다.

하지만 지난 2004년 FA로 KIA와 3년 간 총액 15억원에 계약을 맺은 심재학은 이후 부진의 늪에 빠졌다. 2005년에는 94 경기에서 타율 0.254, 지난해에는 56경기 에서 타율 0.176을 기록하며 2군을 오르 내리는 수모도 겪었다. 지난해에는 6월말 연습 도중 자신의 타 구에 코베를 다쳐 수술을 받는 바람에 3 개월이나 쉬었다.

심재학은 이후 부활을 다짐하며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했다. 프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휴식 기간동안 자비를 들여 외국 에서 개인훈련에 전념하기도 했다. 이번 시즌으로 종료되는 FA계약도 자극제가 됐다.

그러나 갑작스런 손바닥 부상으로 올 시즌 전반기를 접게 됐고, 사실상 선수 생활도 끝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 고 있다.

수술 후 심재학은 “재활에 전념해 하루 빨리 복귀하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떨궜 다.

한편 전지훈련에서 러닝 도중 부상해 조기귀국한 투수 장문석(33)도 14일 정밀검진 결과 왼쪽 종아리근육 파상(挫傷·외부상처 없이 내부조직이 손상되는 것)으로 3주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설 쇠러 집에 가고 싶다” 일본 미야자키 휴가지에서 전지훈련 중 인 투수 김진우(왼쪽)와 한기주가 휴식시 간을 이용해 훈련장 한 켠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신한은행 4연승

여자프로농구

안산 신한은행이 구리 금호생명을 꺾고 4 연승을 달렸다. 신한은행은 15일 구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삼성생명배 2007 여자프로농구 겨울리그 금호생명과의 경기에서 태즈 맥윌리엄스(23점·12리바운드)와 정선민(16점)을 내세 워 74-61로 완승을 거뒀다. 4연승을 달린 신한은행은 11승1패로 2위 춘천 우리은행(8승4패)과의 승차를 3경기 로 늘리며 선두를 굳게 지켰다. 신한은행은 정선민과 맥윌리엄스의 2점 슛과 선수진, 김보좌 등의 3점포 합작으로 전반을 38-31로 앞서갔다. 신한은행은 3쿼터에서도 맥윌리엄스의 변함없는 활약으로 58-40로 리드를 유지한 뒤 4쿼터 들어서자마자 강영숙의 잇단 페인 트존 슛으로 점수 차를 더욱 벌렸다. 금호생명도 이연주의 3점포와 신정자의 2 점슛이 잇따라 성공하면서 반격의 기회를 잡는 듯 했으나 신한은행은 진미정의 3점포 에 이은 정선민의 2점슛으로 추격의지를 꺾 어냈다. 신한은행은 하순주를 4쿼터 중반에 기용, 풀만 풀게 하는 여유를 보였다.

## 100m 59초에 끊는다

### 박태환 기록단축 훈련

‘100m을 59초에 끊는다’ 3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일찌 감치 대회 개최지인 호주 멜버른에 도착한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고)이 본격적인 기록 단축훈련에 들어갔다. 박태환은 지난달 29일 괌으로 출국해 2주 간 전지훈련을 하다 12일 멜버른에 도착했으며, 헤일리베리 대학 수영장에서 25m 또는 50m구간의 단위 스피드 단축에 열중하고 있다. 박석기 감독은 지구력훈련을 하면서도 자유형 1,500m 세계기록 보유자인 그랜트 해켓(호주)의 경기운영 방식을 접목했다. 우선 50m 구간에서 ‘피치(팔을 휘젓는 동작)’수를 기존 33개에서 32개로 줄이도록 했다. 장거리 선수에게 피치 수가 많아지면 체 력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박태환의 아시안게임에서 피치는 초·중 반까지 50m마다 33~34개였다가 마지막 50 m에서는 무려 37개로 늘었다. 기록은 14분55초03, 100m 구간 기록으로 평균을 내보면 열 차례는 1분 대에, 다섯 차례는 59초에 끊는 셈이다. 괌에서 50m 피치를 32개로 줄이는데 성공한 박태환에게 남은 과제는 단위 스피드를 단축하는 것. 박석기 감독은 “앞으로 4주 동안 강도 높은 훈련으로 59초대로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최재호기자 lion@